

단국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오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한 단어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설명하고, [다]를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신년 인사의 표준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직장, 학교, 이웃 등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신년 인사의 정형으로 굳어졌다. 물론 대화 상대에 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집안에서 친척, 친지에 대한 신년 인사는 세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된다. 요사이 젊은 층에서는 세배를 할 때 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어른에게 으레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다. 이런 말은 불필요하고 좋지 않은 말이다. 이런 명령조의 말을 하는 것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절 받는 어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말없이 그냥 절을 하는 것이 공손하다. 다만 나이 차가 많지 않은 어른이 절 받기를 사양할 때 권한 의미로 “절 받으세요.”나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괜찮다.

출처 : 이상형 외, 『국어 I』

[나] 서양 사람들이야 고대로부터 안티 문화를 체득하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기원전 6세기로 돌아가 보자. 서양 철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cleitos)의 사상도 안티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폴레모스(투쟁이라는 의미)’를 만물의 보편적 법칙으로 파악했다. 그는 투쟁 과정 내지는 투쟁 가능성이 주는 긴장이 삶의 활력을 보장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서로 대립하는 것들이 투쟁 가능성을 바탕으로 활력 있게 공존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헤라클레이토스에게 폴레모스는 투쟁과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 사고와 언어의 실천 행위로서 논쟁도 포함한다.

.....중략.....

이제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정착한 우리의 안티 문화에 대해 생각을 좀 해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성찰을 위해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안티 문화의 괴리 현상이다. 언급했듯이 안티는 고대 서구 문명에 뿌리박은 서양적 특성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사상적인 면에서나 실생활 면에서나 그런 안티의 전통이 없었다. 이에 괴리 현상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티라는 것을 제대로 가지고 놀 줄 모른다.

여기서 ‘논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서구에서는 전통적으로 헤라클레이토스식이든 현대의 변증법이든 이분법적 안티 문화를 게임으로 인식하고 실천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게임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게임의 제1원칙은 무엇인가? 혹은 반칙하지 않고 페어플레이하는 것이라고 할지 모른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의 제1원칙은 상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게임에서든 상대를 공격할 때에도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대를 완전히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상대를 완전히 없애 버린다면 게임에 이길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게임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삶의 생동력도 같이 소멸하는 것이다.

즉, 안티(anti-)의 본질은 상대의 존재이다.

출처 : 우한용 외, 『국어 I』

**[다]** 최근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연기자 ○○○ 씨가 악플에 선포로 대처해 화제가 되고 있다. ○○○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방명록에 한 누리꾼이 “연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당신 때문에 그 드라마 안 본다.”라는 내용의 인신공격성 게시물을 올리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시기 불편했던 부분을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도 예쁘다.”, “얼굴도 안 보이는 온라인에서 욕을 먹으면 화가 날 텐데 큰마음으로 보기 좋은 대응을 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안티도 감싸 안는 따뜻함이 느껴진다.”라며 칭찬하고 있다. 한편, “아직도 다른 사람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글을 쓰는 사람이 있느냐.”라며 악플을 남긴 누리꾼에게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 : 우한용 외, 『국어 I』

[문제 2] [가]와 [나]의 관계를 설명하고, [가]의 입장에서 [다]를 활용하여 [마]의 파수꾼 ‘다’를, [나]의 입장에서 [라]를 활용하여 [마]의 ‘촌장’을 평가하십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관계에 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논쟁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경계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보는 입장은 사회 계약론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의 관점으로서 개인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고립되고 공동선에 무관심한 개인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자율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본래의 의도는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공동체의 가치관 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상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이익과 좋은 삶을 위해 보다 나은 사회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좋은 질서를 가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출처 : 박효종 외, 『윤리와 사상』

[나]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공동체의 영향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은 공동체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고, 공동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는 개인에게 소속감과 안정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략……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선은 개인의 삶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선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출처 : 박효종 외, 『윤리와 사상』

[다] 제2차 세계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기차 안에서 한 젊은이가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며 외쳤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나는 독일에 해가 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시다. 나는 꼬박꼬박 세금을 냈고, 법을 지켰으며,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의 외침에 기차 안은 조용해졌고, 모두들 그 젊은이의 분노와 절망에 동감하는 듯하였다. 그때 한 노인이 말하였다.

“바로 그대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걸세. 젊은이, 히틀러가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지르는 동안 그대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이지.”

출처 : 육근록 외, 『사회』

[라] 개인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은 일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립하거나 충돌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국가가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개인이 지나치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내세울 때 발생한다. ……중략……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

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이동환 외, 『사회』

[마] 마을 밖,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에서 파수꾼은 끊임없이 이리 떼의 출현을 감시한다. 마을 사람들은 파수꾼의 양철북 소리가 들리면 대피를 하기 위해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새로 파견된 파수꾼 ‘다’는 항상 선임 파수꾼 ‘가’의 ‘이리 떼’라는 외침과 파수꾼 ‘나’가 치는 양철북 소리에 긴장한다. 그러나 사실 ‘다’는 이리 떼를 본 적은 없고, 신호만 들었을 뿐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호에 겁을 먹고 황급히 피하다가 다치거나 죽기도 한다. 어느 날 저녁, 파수꾼 ‘다’는 다른 동료 파수꾼들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두려움을 안고 망루에 올라간다. 그곳에서 ‘다’는 그간 선임 파수꾼 ‘가’가 “이리 떼”라고 외치는 것의 정체가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략.....

다 정말 이리가 있다구 믿으세요?

나 보렴, 방금도 이리 떼가 오질 않았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나날을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나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숨기라도 했으니까요. 땅에 앞드리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앞드려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양철북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중략.....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 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그들은 화가 나서 도끼라든가 망치를 들고 올 거다.

다 도끼를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수려고 그러겠지.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댁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지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럴죠!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고 사는 게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난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원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닛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뭐라구? (잠시 동안 굳은 표정으로 침묵)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는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구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중략.....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편지를 공개한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중략.....

파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출처 : 권영민 외, 『문학』

[문제 3]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관련지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경제 주체는 스스로의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경제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국내에서 민간 부문의 경제 주체로는 가게와 기업이 있다. 가게는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소비 생활을 하는 경제 주체이다. 기업은 가게로부터 생산 요소를 구입하여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이다.

국내의 공공 부문 경제 주체로는 정부가 있다. 정부는 민간의 경제 주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 돈으로 가게와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그들의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 오영수 외, 『경제』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노동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 또한 경제 성장의 요인이 된다. 인구가 증가하거나, 동일한 인구라도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노동이 증가한다. 노동자의 수나 노동 시간도 중요하지만 노동자가 가진 능력, 즉 노동의 질도 중요하다. 교육, 훈련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 노동자의 생산 능력이 높아지면 경제 성장이 더 빨라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를 하면 노동의 생산 능력이 높아지는 현상을 강조하여 노동 대신에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출처 : 오영수 외, 『경제』

[나] 2011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1.9세, 여성 29.1세로 전년에 비해 각 0.1세, 0.2세 상승하였고,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 남성은 2.4세(29.5→31.9세), 여성은 2.3세 상승(26.8→29.1세)하였다.

출처 : 이진석 외, 『사회·문화』

#### ◆ 결혼, 이혼 및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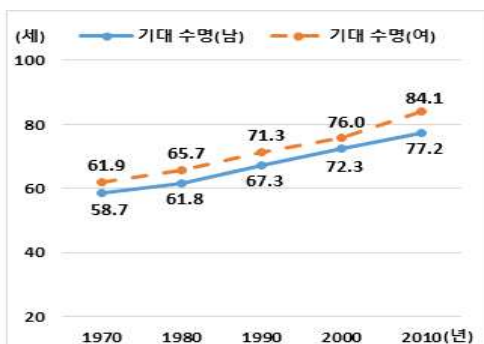
구분	질문	2002	2006	2010(년)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	25.6	25.7	21.7
이혼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6.6	6.8	7.7
부모 부양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9.6	7.8	12.7

▲ 결혼, 이혼,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 수준의 변화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

- 통계청, “한국의 사회 지표”, 2011년 -

출처 : 구정화 외, 『사회·문화』

#### ◆ \*기대 수명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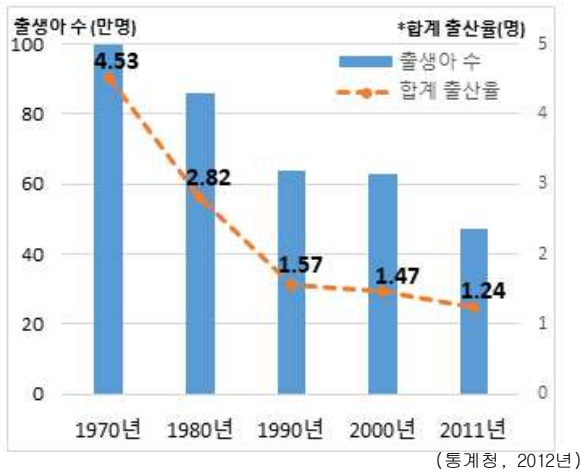
\* 기대 수명 : 출생 시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한다. 즉 0세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살 것인가의 추정치인 '0세에 대한 기대 여명'이다.

(통계청, 2012년)

출처 : 박윤진 외, 『사회』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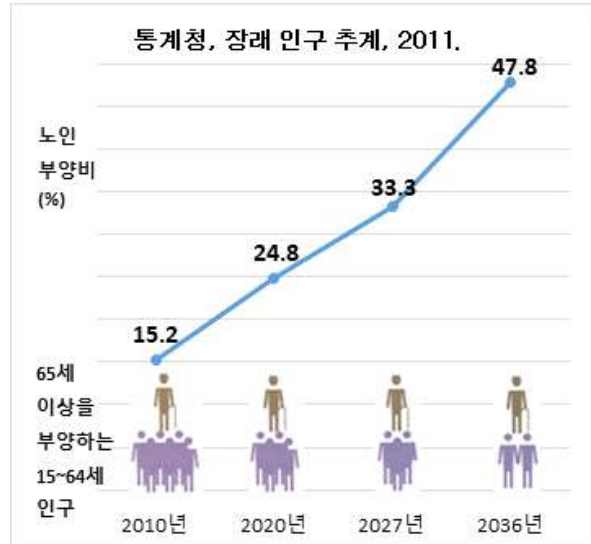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추세



\* 합계 출산율 :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출처 : 박윤진 외, 『사회』

◆ 우리나라 노인 부양비 추이



출처 : 박선웅 외, 『사회·문화』

◆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20	2030	2040	2050
0~14세	42.5	34.0	25.6	21.1	16.1	15.6	13.2	12.6	11.2	9.9
15~64세	54.4	62.2	69.3	71.7	72.8	73.0	71.1	63.1	56.5	52.7
65세 이상	3.1	3.8	5.1	7.2	11.0	11.4	15.7	24.3	32.3	37.4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유소년 인구: 0~14세 인구

\* 생산 가능 인구: 15~64세 인구

\* 고령 인구: 65세 이상 인구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2010년)

출처 : 이진석 외, 『사회·문화』

[라] 노인은 날마다 재래시장 어귀에 있는 돼지갈비 연탄 구이 집을 찾아갑니다. 저녁 6시경, 아직 손님이 붐비지 않을 때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 홀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노인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고 식사를 합니다.

노인이 식당을 처음 찾아온 것은 지난 초겨울 어느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돼지갈비를 주로 파는 집을 찾아와, 노인은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40대의 주인 여자는 연전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생각이 나 장삿속과는 거리가 먼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메뉴에는 된장찌개가 없지만 고기를 먹고 난 손님이 식사를 할 때 내는 게 있다고 하자, 그 거면 된다고 노인은 굳이 부탁을 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주인 여자는 노인에게 식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식당 메뉴에 있는 번번한 된장찌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였는데, 노인은 3천 원을 내밀며 연탄 두 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탄을 건네주자 노인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는 재래시장 뒤쪽의 산동네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날마다 저녁 6시경 식당



으로 내려와 된장찌개를 먹고 연탄 두 장을 손에 들고 산동네로 올라갔습니다. 하루 한 끼의 식사만 하고 두 장의 연탄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노인이 안쓰러웠지만, 내색을 하는 게 외려 노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 같아 주인 여자는 다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식사를 끝낸 노인이 주인 여자에게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남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주인 여자가 고개를 들자 몹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던 노인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식당으로 사흘 이상 밥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거든 그곳으로 전화를 걸어 주시오.”

노인은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3천 원을 내고 연탄 두 장을 받아 양손에 들고 산동네로 올라갑니다.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길을 걸어 올라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인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무사히 다녀가시길 비는 마음에 연민이 가득합니다.

사흘 이상 식당으로 내려오지 않는 건 노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인이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방치당하는 주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기별을 부탁한 것일 터이니, 주인 여자의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하루 한 끼 식사와 두 장의 연탄으로 연명하는 여생, 젊은 시절에는 보살피고 거느린 사람도 많았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요……. 누추하고 남루한 여생을 어루만지듯 펄펄 함박눈이 내리는 밤입니다.

출처 : 조정래 외, 『문학』